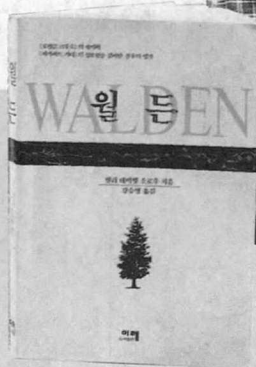


사소한 자연현상도 놓치지 않는 '현자'의 눈

목수 김진송씨가 뽑은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



"이 책에는 월든 호숫가 주변의 풍경, 나무, 물고기 등에 대한 관찰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관찰대상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전통이 약한 우리로서는 배울 만한 점입니다."

미술평론가, 출판기획자, 문화연구가, 저술가, 목수. 김진송씨(42)가 지금까지 거처온 이력이다. 얼마전 딸이 "학교에서 아빠 직업을 알아보겠다"고 했을 때 그 자신도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어 당황한 적이 있다. 어쨌거나 지금은 3년 전 낙향하면서 시작한 목수일에 만족하고 있다. 이런 그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항상 집어드는 책이 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강승영, 이레)이다.

"화장실은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는 두고두고 읽을 만한 책을 들고 갑니다."

《월든》은 미국 작가 소로우가 월든 호숫가에서 통나무집을 짓고 자급자족한 경험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나중에 미국 환경운동의 비조로 평가받았고, 우리 환경운동과 자연주의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책에 담긴 자연에 대한 경의심이나 문명에 대한 회의, 삶에 대한 철학적 사색 같은 것들은 당시로서는 선구적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이 책에 매료된 이유는, 주변에 대한 지은이의 깊이있는 관찰과 분석이다.

"이 책에는 월든 호숫가 주변의 풍경, 나무, 물고기 등에 대한 관찰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관찰 대상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치밀하게 분석·서술하고 있죠. 관찰대상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전통이 약한 우리로서는 배울 만한 점입니다."

그가 책을 읽는 방식은 남다르다. 처음부터 끝까지 글의 흐름을 따라 읽기보다는, 한 장이라도 깊이 읽는다. 예컨대 어느 페이지를 펼쳐 읽고, 지은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상상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은이의 의도를 파악한다. 이 책도 그렇게 읽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고, 그 전후관계를 상상해 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의 의식처럼 수미일관하지 않지만, 내재적으로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로우의 사과의 편린을 들여다 보면 그의 생각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는 곧 그동안 써온 작업일기를 모아 《목수일기》(가제)를 펴낼 예정이다. 그의 책에 담긴 나무와 주변 사물에 대한 관찰은 소로우의 책에서 영향받은 바가 크다. - 김정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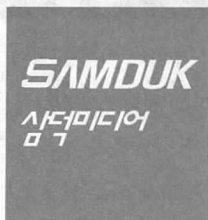
열린마당

가장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 ① 출판의 승부는 기획·편집에 있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힘을 모아 21세기를 준비하는 출판물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雄飛하는 동반자이기를 기대합니다.
- ② 베스트셀러 생활도서·유아도서 및 교구·오디오·비디오 기획·제작의 광범위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③ 종합마케팅플랜에 근거한 표지·광고·팝업북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획·원고작성·번역·편집·디자인·제작代行

110-775 서울·종로구경운동88 수운회관1411호
전화:739-0180(代) 팩스:739-0160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재판·인쇄·제본 등의 工程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삼덕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775 서울·종로구경운동88 수운회관1411호
전화:739-0180(代) 팩스:739-0160
인쇄·제본공장:465-4707(代)